

노인 절반 자녀와 떨어져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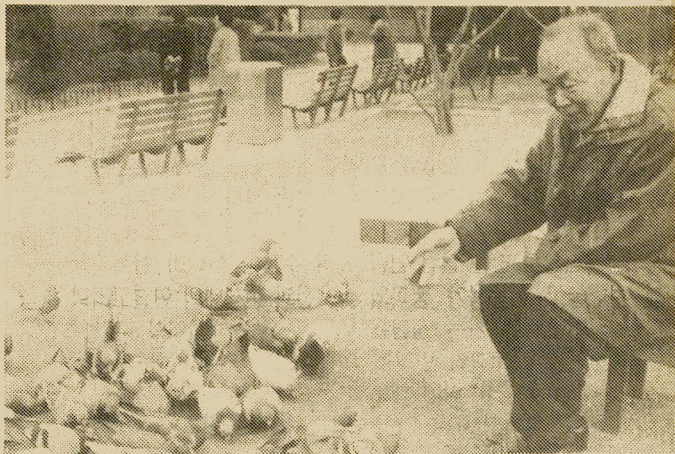
10년새 3.6배 늘어...“아들과 함께 노후를”52%가 소망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노인들이 여전히 많으나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소장 박재간)가 지난 4월 한달 동안 전국의 60살 이상 노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생활실태와 의식구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인 혼자(7.1%)나 노인부부(44.2%)만 사는 비율이 51.3%로 70년의 7%, 80년대 초반의 14%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아들딸과 떨어져 사는 비율이 61.5%로 도시지역의 39.8%보다 훨씬 높아 젊은이들의 도시이동 심화현상을 반영했다.

노인들이 바라는 동거형태는 아들과 함께가 51.9%로 절반 이상인 반면 딸은 1.0%에 불과했고, 나머지 46.3%는 노인단독가구를 원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말아들이 29.6%로 가장 많았고 다른 아들 9.3%, 미혼자녀 4.2% 차례였으며 딸은 1.3%로 가장 적었다.



노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 부양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녀 모두(36.5%)'라고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가나 사회의 책임(23.2%), 만아들(2.4%), 노인들 스스로(17.9%) 등으로 의견이 갈라졌으나 도시지역에 사는 고학력 남자 노인일수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은 27.9%(매우 행복 4.2%, 행복 23.7

%)에 불과했고 열에 둘 정도는 불행(14.2%)하거나 매우 불행(3.7%)하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의 한달 용돈은 절반 이상(55.9%)이 5만원 미만이었고 8.7%는 거의 못 쓴다고 답했다.

노인복지를 위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보험연금제도(76.8%)와 의료혜택(52.8%)을 바라고 있다.